



## 2011년 보험산업 자금조달 총액 433% 증가

왕양비 연구원

- 2011년 동안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중국 금융산업이 자금압박을 크게 겪었으나, 채권발행이 확대되면서 자금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금액은 2010년에 비해 39.2% 증가함.
  - 2011년 은행, 증권, 보험 등 금융산업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확대된 2조 4,000억 위안(약 3,840억 달러)에 이르렀으며, 그 중 은행 및 보험산업의 자금조달 금액이 각각 2010년보다 39.0%, 433.6% 증가하였으나, 증권산업은 287억 위안으로 29% 감소함.
  - 2011년 24%에 달하는 큰 하락폭을 기록한 중국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IPO와 유상증자보다는 채권발행이 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됨.
- 2011년 은행산업의 자금조달 총액이 2조 3,452억 위안으로 나타났는데, 그 중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2조 2,784억 위안에 달하였으나,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규모는 669억 위안에 불과함.
  - 2010년 은행산업 자금조달 규모는 1조 6,879억 위안으로 2011년에 비해 작았지만, IPO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2,255억 위안에 달함.
  - 2011년 동안 31개 은행 중 28개사가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, 이 중 국가개발은행, 중국수출입은행,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3개 정책성은행의 채권발행 회수가 130회로 은행산업 총 채권발행 회수의 74.1%를 차지함.
- 2011년 보험산업의 자금조달 총액은 427억 위안으로 2010년 80억 위안에 비해 433% 증가했는데, 이 중 IPO를 통한 자금이 37억 위안,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이 390억 위안으로 나타남.
  - 2010년 보험산업은 채권발행으로만 자금을 조달하였는데, 발행회사는 태평인수와 태강인수 2개사에 그침.
  - 2011년 들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회사로는 중국인수, 태강인수 등 4개사가 있었으며, IPO를 통한 보험회사는 신화인수 생명보험 1개사임.

(증권일보, 신량망, 1/4 등)